

빛고을 찾아온 ‘크리스마스 선물’, 온누리에 희망·감동 선사

그라시아합창단, ‘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 2회 공연 전석매진 성료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메시지를 전하는 ‘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빛고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화려한 막을 내렸다. 지난 27일 광주 예술의전당에서 2차례 막을 올린 그라시아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에는 수 천명의 관객들이 찾아 전석매진을 이루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했다.

오페라·뮤지컬·합창으로 엮은 총 3막…성탄의 참 의미 전해 관객과 하나된 ‘꼬마 산타’ 특별공연, 연말 뜻깊은 추억 선사

지난 27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2차례 막을 올린 그라시아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에는 수 천명의 관객들이 찾아 전석매진을 이루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했다. ‘크리스마스’에 담긴 의미를 담아낸 이번 공연은 오페라, 뮤지컬, 합창 등 총 3막으로 구성됐으며, 각 막마다 다채로운 형식으로 2시간에 가까운 긴 러닝타임을 가득 채우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다. 1막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기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가 장엄한 오페라로 펼쳐졌다. 2막은 오 헨리의 명작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



▲특별공연으로 펼쳐진 꼬마산타들의 무대

▶크리스마스 칸타타 3막 그라시아합창단 캐롤 공연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따뜻하게 노래했다. 이어진 3막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곡들부터 웅장한 곡까지 아우르는 무대가 펼쳐져 연말의 설렘을 선사했다. 여기서 음악은 단순히 대사로 노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잊고 있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섬세하게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한층 더 화려해진 무대 연출과 특수효과로 완성도를 높여 고품격 공연으로 자리매김하며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또 다른 특별공연도 인기였다. 꼬마산타의 ‘스노우맨’, ‘폴카’ 등의 귀엽고 앙증맞은 무대에 관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뜻깊은 추억을 함께 만들었다.

박옥수 그라시아합창단 설립자는 이날 성탄 메시지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복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객석을 찾은 김병중 시인은 “이번 칸타타는 ‘탄생’이라는 기적을 음악과 연극으로 다시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감동을 전해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무대였다”며 “공연장을 나서며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든 평안과 감사의 감정이 오래도록 남아,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주 작가는 “공연도 전반적으로 감동스러웠다. 꼬마산타의 공연도 미소짓게 만들어주어 행복했다. 각 막마다 마음을 몽글하게 만들어 여운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그라시아합창단은 올해 칸타타 전국 투어 공연을 앞두고 ‘예향’ 광주에서 3주간 머무르며 성공적인 무대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지역 문화 소외 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해 자선공연을 펼쳐온 합창단의 공연 준비 소식에 지역업체 20여곳에서 따뜻한 후원이 이뤄져 감동을 더했다. 한편, 그라시아합창단은 오는 30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투어 공연을 이어간다. /최명진 기자

“사출이율 비장흥(초육), 재사중 길무구 왕삼석명(구이), 사혹여시 흥(육삼)”



〈제37강〉7. 지수사(地水師)中

사괘(師卦)초육의 효사는 ‘사출이율, 비장 흥(師出以律, 否臧凶)이다. 즉 ‘군대를 동원하고 부름에 있어서는 반드시 율령, 법규로써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흉하다’는 의미이다.

사지임(師之臨 初動)		초효는 양위에 음효로 부정부중하다. 병사로서 구이 장군의 명령을 따르고 초효이기 때문에 출사(出師)의 개시를 알리는 출정의 자리이다.
지수사	지택임	

여기서 율(律)은 군(軍)에 있어서는 군율(軍律)을 의미하고 원래 율은 옛날의 악기로서 악기는 조율(調律)이 중요하므로 군사를 부름에 있어서는 엄격한 군율과 위 아래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 흥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상전에서 ‘비장흥(否臧凶)을 ‘실효흥(失律凶)이라 해 군율을 잃으면 흉하다고 부연하고 있다. 초육의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때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다. 밑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점사에서 초효<각주 = 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초육을 만나면, 벼슬한 자는 능히 신도를 다해 천충이 날로 더한다(桓虎盡臣道 以天寵日加/즉 국진신도 인천충일가). 선비는 문과가 법식이 시대요구에 맞아서 공명을 가히 취한다(則文義合式 而功名可取/즉문의합식 이공명가취). 서숙은 경역에 묘법이 있으면 재물이 날로 더한다(則經營有法 而財貨日增/즉경영유법 이재화일증). 단가 법계 움직이는 자는 성공이 적고 실패가 많다(但輕於動者 成少敗多/단경여동자 성소패다). 수흥자(數興者)는 험하게 행해 수를 상한다(行險傷壽/형험상수)>를 득하면, 일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로서 내부의 규율에 잘 따르지 않고 통제가 안돼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는 일 자체는 좋든歹든(陰柔不才)의 초효로서 열심하고 마음대로 하려 하고 음유부재(陰柔不才)의 초효로서 열심하고 마음대로 하려 하고 의욕이 부족하다. 따라서 일을 추진할 때는 엄격한 규칙과 율령을 세우고 이에 따른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거래, 사업, 바람 등에 있어서는 일의 순서와 규칙을 정해 추진해야 하고, 친함 등의 인간관계로 인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혼인의 경우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서 일양음옴(一陽五陰)패로 이성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상대에 대한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임태는 임신 초기로서 절제를 지키면 순산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행방을 알기 어렵다. 가출인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따 떠나려 하는 시기이고 분실물은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돼 금방 찾으리라 말할 수 있으며 길 위에 떨어뜨렸을 수 있다(變大震, 大路, 大驚). 병은 다리, 발 등 각기병으로 초기이니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낱씨는 비가 그쳤으나 흐린다. ‘모인의 시험 합격여하’를 묻는 ‘실점’에서 초구를 얻고 점고하기를 ‘초효는 군율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否臧凶)가 있으니, 공부로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초효는 양위에 음효가 있어 실력이 부족하고 열심하지도 않았으니(陰柔不才) 합격은 어렵다’고 해서 역시 그

러했다. 전쟁 시에 ‘차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수하를 이끌고 공격하는 일의 성사 여하’를 묻자, ‘사지임(師之臨)을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사괘 초육에 ‘군사를 부름에는 군율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흉하다(師出以律 否臧凶)’고 했으니 성공하지 못한다. 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괘 감수가 태택으로 변해 감수의 물이 못에서 막혀 흐르지 못하고 말라 버리니 결국 행하지도 못하고 패해 흥을 초래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괘 구이의 효사는 ‘재사중길 무구, 왕삼석명(佐師中吉无咎, 王三錫命)이다. 즉 ‘군대의 장수는 중심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허물이 없다. 왕으로부터 세 가지 명이 내린다’는 뜻이다.

사지권(師之坤 二動)		이효는 음위에 양효로 전체 군대 내에서 중앙의 자리에서 중용의 미덕을 발휘해 통솔하고 있다. 양강하면서 득중하니 규율을 엄히 세워 중용(衆陰)을 귀속시키면서 부하들을 다스리는 카리스마가 있다. 따라서 전투에서 패배가 없어 길하고 허물이 없다.
지수사	곤위지	

즉, 구이는 사괘(師卦)의 성괘주(成卦主)로서 양효(陽爻)가 강건해 군의 장수, 장인인데 곤위(君位)인 육오와 음양상응(陰陽相應)해 임금으로부터 신망과 총애를 받고 있다. 능력을 갖춘 장수가 군대의 중심에 자리 잡고 군사를 율령에 따라 잘 지휘하고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으며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세 번의 왕명을 받고 상을 받는다. 상전(象傳)에서도 ‘승천총야 회만방야(承天寵也 懷萬邦也)라고 해 ‘하늘(임금)로부터 총애를 받고 나라를 잘 지켜 보유했다’고 말한다. 구이의 때에는 세가지 명, 세 번의 기회가 오고 보통 사람은 버는 것이 세 배가 되며,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재물이나 이성운도 좋은 시기이다.

점사에서 서숙을 들어 구이<※각주 = 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구이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반드시 총애를 다해 천서로 벼슬을 명받으며, 밖에서는 조정으로 들어오고 안에서는 출사한다(則必加寵錫天爵命在外入朝 在內出師/즉필가총석천서천서적명 재외입조 내출사. 선비는 반드시 성명해서 기하오름으로 풀림을 득한다(必成名而難解可/필성명이과해가득). 서숙은 반드시 귀인을 만나 뵈거나 패하는 일이 마름대로 된다(德必遇貴而百勝稱心/즉필우귀 이백모칭심). 승려나 도인은 은총을 받고 여명은 봉작을 받는다(僧道受恩 女命受封/승도수 은여명수봉)>를 득하면 내래가 감변곤(坎變坤)해 감수의 어려움이 평지인 곤지로 해결되는 때이다. 즉, 모든 것이 유리하게 전개돼 종래의 어려움이 풀려간다. 나이가 공을 세워 뒷사람이 표창하고 아래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보통사람보다 책임있는 위치에 오르고 세 가지 좋은 일(三三錫命)이 생긴다.

이러한 때에는 현제 하고 있는 일이나 바람, 사업, 취직, 전직, 승진, 복직, 임찰 등은 시기도 좋고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도 부합돼 끈기있게 노력하면 크게 성공하고 이루어진다. 직장 생활하는 자가 구이를 득하면 사장으로부터 출장, 파견명령(王三錫命)을 받아 책임있는 지위에서 경쟁자나 경쟁회사를 이기기 위한 일을 한다. 그러나 혼인과 병점에서는 흉조가 있다. 혼인의 경우는 변괘가 곤위지이니 곤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삼석명

(三錫命)으로 두세 번 반복하게 된다. 병점에서는 곤의 흠으로 돌아가는 육충괘가 돼 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임태는 출산이 가까워 예정보다 빨리 순산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돌아오기 힘들고 가출인은 어딘가에 숨어 머물고 있으며, 분실물은 찾기 어렵다. (대인점, 실물점, 가출인의 행방 등은 일반적으로 동효가 있는 소성괘인 변괘를 보고 판단한다.) ‘실점에’로서 먼저 ‘여덟 살 먹은 여아(女兒)가 임신했는가’의 여부’를 묻는 점에서는 ‘곤지 배 속에 일양이 자라서 마침내 곤지의 어미로 변하니(坎變坤) 믿기 어려우나 임신(姙娠)이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역시 그러했다. 서열이 낮은 자가 ‘경찰서장으로 승진 여하’를 물어 입서해 구이를 얻었다. ‘구이의 왕삼석명의 효사에서 말하듯 능력과 재주가 있어 기관장으로부터 총애를 받으니 비록 서열은 후 순위에도 승진은 확실하다’고 점고해 역시 그러했다.

사괘 육삼의 효사는 ‘사혹여시 흥(師或興尸凶)이다. 즉 ‘싸움에서 전사자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니 흉하다’는 뜻이다.

사지승(師之升 三動)		사괘에서는 능력있는 장인이 아닌니 길을 얻지 못하는데 육삼은 양위에 음효가 있어 음유부재(陰柔不才)해 실력이 없고 육삼에 응하는 효도 없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싸움에서는 틀림없이 패하고 흥할 수 밖에 없다. 육삼·육사·육오는 곤지로 시체라 볼 수 있고 이 시체가 구이·육삼·육사의 진(震)의 수레(輿) 위에 싣려 있다(屍上輿).
지수사	지풍승	

사괘의 호괘(互卦)를 살펴보면 지뢰복(地雷復)이 돼 시체를 싣고 돌아오는 상이다. 이를 상전에서는 ‘큰 공이 없다’(大无功也)고 말한다. 육삼의 때에는 싸움에서 패해 시체를 싣고 돌아오는 등 모든 일들이 좋지 않다. 무리하면 절대 안된다. 점사에서 육삼<각주 = 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삼을 만나면, 슬픈 근심이 많이 이르며 혹 부모의 복을 얻는다(悲憂多至 或服丁憂/비무다지 혹복정우/丁憂 부모의 喪事를 당함, 丁艱). 서로 합협한 자가 사삼으로 변하면 승의 허읍지사가 있으니(如與合相者 變升三爻 有升虛邑之辭/여협상합자 변승 삼효 유승허읍지사). 미사자는 막히지 않고 이사자는 직분을 받기에 결원을 기다려야 한다(未仕者 不阻, 已仕者 受職待缺/미사자 불조 이사자 수직대결). 심이 월생은 또 귀하고 길하다(十二月生人 又貴而吉/심이월생인 우귀이길)이니 小成內卦가 坎水로 12월은 水旺之節로서 때를 얻었기 때문)>을 얻으면, 대부분의 일은 모두 깨져 상처를 입어 흥하다. 싸움에서는 틀림없이 패해 전사자가 많고 시신(尸身)을 마차에 싣고 돌아온다. 특히 병점에서는 효사에 ‘여시(興尸) 즉, ‘주검을 수레를 싣고 온다’고 했으니 대단히 흉하다. 상인이 상품을 팔면 도중에 망가지거나 주문의 조건에 맞지 않아 반품된다. 찾는 사람은 찾을 수 없고 찾으려 간 사람은 무엇인가 망가지거나 다쳐 손해를 입고 돌아온다. 투자한 돈은 모두 잃고 오히려 추징금 등을 당하는 흉조가 있다. 따라서 모든 일은 진행하면 실패하니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바람, 사업, 거래, 취직, 전직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혼인의 경우에도 결혼 후 건강을 해치거나 불화(不和)하여 이혼할 우려가 있다. 다만 임신 초기는 곤의 뱃속에 일양이 지수사, 지풍승, 뇌풍향으로 점점 자라고 있어 3, 4개월 후에 순산할 수 있으나 5, 6

개월이 돼버리면 태풍대과, 천풍구로 자라나 오히려 역아(逆兒) 또는 사산(死産)이 돼 버리니 주의가 필요하다.

지수사괘 양(陽)의 성장					
지뢰복	지수사	지풍승	뇌풍향	태풍대과	천풍구

가다리는 사람이나 가출인은 돌아오기 힘들고 분실물 등은 손실돼 찾기 힘들다. 낱씨는 바람이 불고 흐린다. 모든 일에서 육삼을 얻으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엄히 경계해야 하고 수성(守成)에 혼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모 여인이 남편의 운세 여하’를 입서해 육삼을 얻은 ‘실점’에서 점고하기를 “사괘를 얻었으니 직업은 스승이거나 군인으로 변승괘(變升卦)이니 승진을 바라는 마음으로 문점했다. 당자는 많은 수하를 통솔하는 사람으로서 군인이려면 장성급(將星級)으로 생사(生死)의 고비를 겪으면서 승진을 한다. 지금은 삼효의 효사에 ‘사혹 여시 흥(師或興尸凶)이라 해 하는 일이 실패하고 흥하니 추진하지 말고 잠시 기다렸다가 육효의 때가 되면 ‘나라를 열고 집안을 이어간다(大君有命 開國承家)’고 했으니 원하는 바는 이때에 이뤄진다”고 해 역시 그러했다.

왕명운이성괘	사지승(三動)	사괘 역양성괘
지뢰복	지수사	지풍승

다른 ‘실점’으로 ‘어느 노인의 출가한 딸이 친가로 돌아오자 걱정스런 마음’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점해 ‘지수사 삼효’를 득괘하고 다음과 같이 점단했다. 사괘는 지뢰복에서 온 괘이고 복괘는 ‘돌아온다. 반복한다’는 괘이니 딸이 친가로 돌아왔다. 사괘는 곤모가 차남을 임신하고 있는 상이니 딸은 남자를 임신했고, 사괘의 호괘로 역시 복괘를 내포하고 있어 딸은 시가(孀家)로 돌아갈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은 즉 노인의 딸은 시가(孀家)에 딸을 두고 왔으나 둘째를 임신해 친가(親家)로 돌아와 임신한 아이를 키우면서 살라는 의도로 친가로 돌아와 버린 것이다. 사괘의 삼효가 변하면 지풍승(地風升)이고 승괘(升卦)는 하괘 손풍 나무가 곤토 땅 밑에서 발아(發芽)하고 있는 상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친가에 있다가 출산 후에는 시가로 돌아갈 것이다. 다만 사괘의 삼효 효사에 사혹여시(師或興尸)라 했으니 혹 딸이 자살하거나 사산(死産)할 수 있으나, 사괘의 상하괘를 역위(易位)해 보면 수지비(水地比)가 돼 비괘는 친하게 되는 기쁨의 괘이니 시가로 돌아가면 출산한 자식은 아들로써 시가(孀家)에 기쁨을 주고 딸도 시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판단했다. 역시 그러했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명리사주학,역경(매주토,일오전)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기양성

